



[산업동향] 금년 낙농 트렌드 Top 3 - 식음료 시장조사기업 발표

- 면역력 증진, 정신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 균형 잡힌 영양 강화 제품 인기 등



식물성 대체식품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글로벌 식음료 시장 조사기업인 이노바 마켓 인사이트(Innova Market Insights)가 영양가 풍부한 유제품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제고시킬 트렌드 3가지를 발표했다.

첫째, 면역력 증진에 대한 관심 증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불안이 지속되며 면역력 강화를 위한 관심도 이어지고 있다. 이에, 면역 건강과 연관이 깊은 것으로 알려진 요거트와 발효유 등 유제품에 대한 수요도 높아지고 있다.

둘째, 균형 잡힌 영양 강화 제품 선호. 예전에는 단백질을 선호하는 소비자들을 위한 고단백 식품, 소화기 건강을 위한 섬유질이 풍부한 식품 그리고 체중 감소를 위한 저당 식품이 인기를 끌었다면 이제는 유제품과 같이 다양한 영양소를 골고루 함유한 제품이 인기를 끌고 있는 추세이다.

셋째, 기분 전환을 위한 식품 수요 증가. 세계보건기구(WHO)가 오는 2030년에는 우울증이 가장 발병률이 높은 질병이 될 것이라고 발표한 가운데 코로나19 장기화로 소비자들의 스트레스 지수도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며 정신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향후 스트레스 완화를 위한 유제품 개발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한편, 이노바 마켓 인사이트는 오는 3월 10일 웹세미나를 통해 향후 1년간 낙농업계에 영향을 미칠 트렌드 Top 10을 발표할 예정이다. < 출처 : dairyindustries.com, 2월 21일자 >

[산업동향] 美 낙농업계 불확실성 지속 전망 - USDA 농업전망포럼

- 원유생산량 증가에도 수요 침체와 사료 가격 상승으로 불확실성 지속될 것



지난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된 코로나19가 금년까지 장기화됨에 따라 미국 낙농업계의 불확실성이 지속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농무부(USDA)는 지난 19일 개최된 농업전망포럼을 통해 “지난해 낙농업계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식품서비스업의 영업중단, 휴교령 등으로 인한 제약과 유제품 시장의 변동성 확대에도 우유 및 사료 가격이 안정되며 착유두수가 증가하는 등 비교적 평탄한 한 해를 보냈다”고 평가했다.

반면 지난해 착유두수가 증가하고 연말 양호한 날씨에 따른 원유생산량 및 두당 생산량 증가에도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제약과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으로 수요가 침체되며 유제품 재고가 쌓이고 높은 가격 변동성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낙농업계는 공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소비 촉진을 위해 새로운 판로를 모색하거나 정부의 푸드뱅크 프로그램을 통해 유제품 재고 소진을 위해 노력했으나 재고 부담을 해소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년 원유생산량이 1.9%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수요가 회복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원유 가격이 하락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또한, 사료 가격이 2014년 이후 최고치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낙농업계의 불확실성이 지속될 것이라는 게 USDA의 판단이다. < 출처 : thecattlesite.com, 2월 22일자 >

위 내용은 세계낙농동향을 전파하기 위해 해외 낙농사이트에서 뉴스를 발췌해 번역한 것으로 낙농진흥회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위 내용을 기사 작성시 활용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